

南北韓 歷史學의 比較와 統合 展望*

鄭 杜 熙**

- I. 머리말
- II. 남북한 역사학의 유사성
- III. 남북한 역사학의 차별성
- IV. 남북한 역사학의 통합은 가능한가?

I. 머리말

최근 10여 년 사이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마주 대면할 기회가 생기면서, 남북한 사이의 학문적 교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학문의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이 역사학 분야라 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간의 분단은 남북한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도 분단 이전의 오랜 역사는 공유하고 있기에, 역사학 분야에서는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한간의 교류는 여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그나마 비정치적인 역사학 분야에서의 교류는 전혀 없다고 까지 말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막연한 일반적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왜 그럴까?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북한의 역사서술을 보면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관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항일운동도, 조국의 해방도, 그리고 그들이 것처럼 강조하는 소위 해방전쟁이라는 것도, 나아가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도 모두 주체사상이 전개되어 온 역사로 기록되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그토록 강조하였기에 이는 “영생불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관념이 영생불멸이라면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제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그 효용성은 절대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시대에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또는 어느 인간집단에서나 주체사상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으며, 이 주체사상은 조국의 해방과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요인이었다.

북한의 역사서술이 주체사상이라는 관념의 늪에 이처럼 깊이 빠진 것은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하려는 정책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정당이 주체사상이라는 오직 하나의 이념의 완성을 위해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은 김일성 한 사람의 영도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김일성을 신격화할 정도로 개인숭배가 고도로 체계화된 북한에서는 합리적인 이성이 학문의 세계를 지배한다기 보다는 학문과 이성을 초월한 종교적 가치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근현대사 서술이 철저하게 김일성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의 신비한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현실 속에서는 차라리 당연한 것이었다. 전지전능한 신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듯이, 영생불멸한 신의 계시 앞에서는 모든 인간 이성의 활동은 그에 종속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우리가 말하는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북한간의 역사학의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남북한의 학문적 교류에 대해 너무나 비판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비판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남북한 사이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냉정하게 인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분단과 적대적 관계는 학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역사학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II. 남북한 역사학의 유사성

1. 민족주의적 경향

1991년에 간행된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 개설서인 『조선통사』(상)에는 매우 짙막한 ‘머리말’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조선인민의 발전력사는 오랜 기간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측으로부터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

하나의 피줄과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우에서 수천년동안 살아온 단일민족인 조선인민은 매우 이른 시기에 력사를 창조하는 질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다.

조선인민은 오래동안 외적들의 큰 규모의 침략을 여러차례 받았으나 그때마다 높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침략자들을 용감히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왔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이 강한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지배와 폭압을 반대하고 자유와 진보를 위하여 고통없이 싸워왔으며 자기의 우수한 재능을 꽃피워 찬란한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문화의 보물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¹⁾

『조선통사』에서는 조선의 역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의 역사라고 하면서, 동시에 ‘단일민족’이며 ‘문명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외래의 침략을 물리쳐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민족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민족주의적 입장을 강조한 『조선통사』의 구체적 내용은 시종일관 사회적 계급으로서의 인민이라는 입장보다는 외래의 침략에 대항하는 민족투쟁의 역사를 훨씬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제3편 ‘봉건사회’편의 제3장은 삼국시대에 관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북방의 고구려와 부여를 비롯하여, 남쪽의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를 모두 서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5절 ‘수당 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이 전체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고구려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외투쟁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 투쟁사 첫 머리에 “지난날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시대”였다²⁾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고 나서, 612년 수나라의 제2차 침입을 물리친 부분에 이르러서 또 다시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어록을 인용하고 있다.

1) 손영종 외, 『조선통사』(상) (사회과학출판사, 1991) p. 1.

북한의 역사서에서 직접 인용할 경우, 우리 맞춤법과 다르더라도 원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위의 책, p. 105.

고구려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되고 무술을 배웠으며 용감성으로 단련되었기 때문에 높은 민족적 긍지와 씩씩한 기상을 지닐 수 있었으며 아세아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수나라의 300만 대군의 침습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³⁾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는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지켰다는 김일성의 교시는 북한 역사학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 체제와 학문세계의 특성상 이런 김일성의 교시는 역사서술에 철저하게 반영되었던 것이다.

고구려를 중심으로 고대사를 서술하면서 보여 주는 이러한 배외적인 민족주의적 요소는 『조선통사』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외래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불교와 유교가 처음 전래되었던 사정에 대해서 『조선통사』(상)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봉건통치계급은 또한 외래종교와 관념론적철학들을 끌어들여 자기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리용하였다.(124)……불교는 사람들에게 현실세계는 모두 “고통”으로 차있다고 하면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일체 욕망을 버리며 오직 부처를 믿어 “정신수양”을 하여 이른 “극락세계”에 도달하라고 설교하였다. 이것은 결국 현존봉건질서를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으로서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하였다.(125)……유교는 초자연적인 “하늘신을 숭배하며 삼강오륜의 룰리도 덕관에 기초하여 봉건지배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설교하였다. 유

3) 위의 책, p. 107.

교는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좀먹고 봉건륜리도덕을 퍼뜨려 놓음으로써 고유한 미풍량속과 고상한 도덕품성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특히 유교의 종교적, 관념론적 세계관은 조선에서의 유물론적인 철학사상의 발전을 방해하였다.⁴⁾

불교와 유교가 외래종교와 사상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두 가지 모두 지배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 역사에 민족의식을 좀먹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쳤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서술은 오직 자주적이며 민족적인 색채만이 강하게 나타났다. 사실상 이것보다 더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역사서술을 찾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기의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남한의 학계라고 해서 민족주의적 색채가 약한 것은 아니다. 일찍이 孫晉泰는 역사서술에서 민족의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민족이란 계급을 초월한 일체적 통일성을 강조하게 마련이지만, 그 내부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계급과 민족이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가 여전히 역사서술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함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貴族 政治는 이렇게 利己的・非民族的 少数 特權 階級の 專制的 이었던 것이다. 귀족도 민족의 한 부분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어, 민족은 두 계급으로써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文化는 완전한 하나의 民族 文化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 있었으니, 高級 文化는 貴族에 독점되어 고도로 발전되었으나, 一般 國民의 文化는 저급한 채 발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임에는 틀림이 없고, 오직 하나는

4) 위의 책, p. 125.

貴族의이요 다른 하나는 民衆의이었던 不平等이 있었을 따름이며, 또 이러한 모양은 옛날의 모든 민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民族의 內部가 平等하여야 할 앞으로의 민족 문화는 이러한 弊惡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⁵⁾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는 모순 대립되어 보이는 두 계급의 문화 전체가 합해서 민족문화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배와 피지배로 나뉘어진 그런 상황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는 민족의 내부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사관은 李仁榮에 의해 계승되었다. 해방 이후 세 계사적인 흐름에 노출된 조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그는 『國史要論』에서 「國史와 世界史」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자 하였다. 그는 “國史는 우리 民族의 形成・盛衰의 역사로 國史의 主體가 우리 民族 自身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民族은 우리 民族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민족들과 더불어 交涉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⁶⁾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사가 세계사에 묻혀 독자적인 특수성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國史의 主體가 언제나 우리 民族 자신인 만큼 世界史의 潮流 또는 소위 世界史의 必然性을 중시하는 나머지 民族的 意志 民族的 創造를 전혀 沒覺하여 버린다고 하면 국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姑捨하고 世界史의 파악에 있어서도 正鵠을 잃을 것은 명

5) 孫晉泰, 『國史大要』(乙酉文化社, 1949), pp. 29-30.

6) 李仁榮, 『國史要論』 제25장 「국사와 세계사」 p. 219

若觀火한 사실이다. 國史와 세계사, 民族文化와 世界文化, 이것은 일견 대립되는 듯 하지만 실상은 不可不離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 같이 世界人類社會發展史를 형성하는 것이다.⁷⁾

그는 역사의 보편성만을 강조하는 唯物史觀論的인 입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觀念的 民族性的 優秀 또는 졸열”에 만사를 귀결시키는 편협하고 잘못된 민족주의적 태도를 비판하였다.⁸⁾ 그리고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역사관을 “民族的 世界觀에 立脚한 世界史的 國史의 새로운 認識”이라 규정하고⁹⁾ 이러한 역사관이 앞으로는 크게 보급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¹⁰⁾ 이런 점에서 그는 孫晉泰의 新民族主義 태도에 상당히 공명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

그러나 해방 이후 孫晉泰와 李仁榮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단절되었던 새로운 민족주의적 역사해석은 李基白에 의해 다시

7) 李仁榮, 『國史要論』(金龍圖書會社, 1950), 「국사와 세계사」, pp. 219-220.

8) 李仁榮, 『國史要論』 「국사와 세계사」 p. 220

9) 李基白의 논문 「新民族主義史觀과 植民主義史觀」(『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에 의하면 “民族的 世界觀에 입각한 世界史的인 國史”의 주장이 야말로 李仁榮 한국사관의 새로운 경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p. 115)

10) 李仁榮, 『國史要論』 「국사와 세계사」 p. 220

11) 李仁榮은 “民族的 世界觀에 立脚한 世界史的 國史의 새로운 認識”을 주장한 다음에, “우리는 鎖國的인 排他的 獨善的 似而非한 民族思想을 버리고 開放的인요 世界的인요 平等的인 新民族主義 立地에서 우리 民族史를 研究하고 理解”하여야 한다는 孫晉泰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國史要論』 pp. 220-221 참조) 이런 점에서 그는 孫晉泰의 신민족주의적 역사관에 깊이 공명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李仁榮의 주장이 孫晉泰의 영향임이 뚜렷하다는 것은 일찍이 李基白이 지적한 바가 있다. (『新民族主義史觀과 植民主義史觀』(『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 p. 113) 李基白의 이 논문은 李仁榮 사학의 사학사적 의의와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금 발전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는 1961년의 『國史新論』을 통하여 먼저 식민주의사관의 극복을 위한 본격적 노력을 기울였다. 李基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67년에는 『韓國史新論』을 집필하였다. 한국사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기백 자신의 독창적인 역사관에 토대를 둔 『韓國史新論』은 한국사를 타율적, 정체적으로 해석하였던 식민주의사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었으며, 그 대안은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研究成果를 저자 자신만의 독특한 史觀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기백은 1976년 『韓國史新論』(改訂版)을 내면서, 민족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성찰을 제시하였다.

韓國史의 主人公은 결국 韓國人인 것이다. 이 韓國人은 물론 韓國民族이란 말로 대치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韓國人 혹은 韓國民族을 個人과 같은 단일한 존재로서 추상화시키는 것은 韓國史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韓國民族도 하나의 社會的 존재인 것이며, 거기에는 각기 역사적인 역할이 다른 여러 人間集團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여러 人間集團이 존재하는 양상이나 변화해 온 과정을 다른 民族의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같았고 또 어떤 점이 달랐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韓國民族도 결국은 人類의 한 구성원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人類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韓國民族의 역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길의 하나가 되겠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식은 만말로 한다면, 그 普遍性和 特殊性의 인식이 되겠다.¹²⁾

그는 한국사의 주인공은 한국민족이지만, 이 민족을 단일한 존재로

12) 李基白, 『韓國史新論』(改訂版) (一潮閣, 1976), p. 5.

추상화시키는 점을 경계하면서, 한국사의 특수한 성격을 구명하되, 그 특수성이 세계사적인 보편성 속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다. 손진태와 이인영, 그리고 이기백으로 이어지며 발전하여 온 남한의 민족주의사관은 오늘날 한국학계를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민족주의 사관이 계속 폐쇄적이고 세계사와 완전히 고립되어 발전해 왔다면, 남한의 민족주의 사관은 더욱 그 문호가 넓어지고 다양한 세계와 공존할 수 있는 양상으로 발전하여 왔던 것이다.

2. 17, 8세기 사회발전론

오늘날 남한 학계에서 17·8세기는 특별한 시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농업과 상공업이 과거 어느 때보다 발전하고, 실학사상이 전개되었던 이 시대는 이후 우리 나라의 근대화 문제와 맞물려 매우 중요시되었다. 이 점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역사서술을 비교하여 보면 남북한 역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다른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개설서인 『조선통사』에서도 출판시기에 따라 이 시대사의 서술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조선통사』(상) 1977년판과 1991년판의 해당부분 내용구성을 보면 이러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77년판 『조선통사』 (상)	1991년판 『조선통사』 (상)
제10장 17세기 상품화폐관계의 발전 제1절 17세기 전반기 대내외정세 제2절 17세기후반기 생산의 복구와 상업의 발전 17세기후반기 생산의 복구와 상업의 발전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 상업의 발전 제3절 대동법의 실시와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의 시작 대동법의 실시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의 시작 제4절 17세기의 문화	제8장 17세기 대내외정세와 봉건적 착취관계의 변화 제1절 17세기중엽 국내형편과 대외관계의 격화 제2절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3절 17세기이후 봉건착취관계에서의 변화, 농민폭동의 양양 1.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토지경영형태에서의 변화 2. 대동법의 실시 3. 신역제에서의 변화 4. 노비신공법의 수정 5. 농민폭동의 양양 제4절 17세기의 문화
제11장 18세기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실학의 발전 제1절 18세기전반기의 사회경제형편과 계급적 모순의 장성 18세기 토지소유관계에서의 변화와 전쟁에 의한 착취의 강화 농업생산의 발전 수공업의 발전 광업의 발전 금속화폐 유통범위의 확대 국내상업의 발전 대외무역의 발전 계급적 모순의 장성과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근역법의 실시 신평법의 개정 탕평정책과 형벌제도의 변화 제2절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상업자본의 형성과 매점활동, 상인자본의 생산부문으로 침투 농촌에서의 계급분화 고용노동의 장성 광업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발전 동점과 은점에서 공장제수공업의 형성 금속가공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발전 농그릇수공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형성 제3절 18세기의 문화	제9장 상품화폐관계의 발전,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제1절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 1. 농업의 발전 2. 수공업의 발전 제2절 상품화폐관계의 발전 1. 금속화폐의 유통 2. 상품유통의 장성 제3절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1. 상업자본에 의한 소상공생산의 지배, 자유로운 노동력의 형성 2.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 제4절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5절 18세기의 문화

<표 5> 『조선통사』(상) 1977년판과 1991년판의 17·8세기 서술 구성 비교

위의 <표1>을 보면 17·8세기 경제의 발전에 대한 서술이 1977년판 『조선통사』에서 훨씬 자세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서술 분량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1977년판 『조선통사』(상)은 1988년에 도서출판 오월에서 다시 조판 간행되었는데, 이 책의 404면에서 496면까지가 이 부분의 서술에 해당된다. 이에 비하여 평양에서 출판된 1991년판에서는 408면에서 474면까지가 17,8세기에 대한 서술이다. 할애된 면

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책 한면에 실린 글자수를 따지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서울에서 인쇄된 1977년의 『조선통사』(상)에서는 한 면에 약 1470자 정도가 인쇄되며, 1991년의 평양판에서는 한 면에 약 1020자 정도가 인쇄된다. 이것을 면수와 결합하면 1977년 판이 1991년 판보다 두 배 이상이나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면에서의 차이 뿐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7년 판의 제10장 제2절의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 부분을 보면 17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수공업이 발전하고, 목면·담배·인삼 등 “공예작물재배”가 성행하는데, 이는 모두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이 상당한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농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새로운 작물들의 도입은 농업에서 생산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빠르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상품생산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생산물의 많은 부분이 생산자 자신의 소비에 충족된 양곡생산과는 달리 시장화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었다.¹³⁾

말하자면 경제작물의 재배로 인하여 점차 상업적 농업이 발전하였으며, 이는 자금자족적인 농업경영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위기는 대동법 실시 이후 수공업의 발전과 어울리면서 화폐의 전국적 유통이 시작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1977년판의 제11장 제1절에서는 17세기 후반기의 새로운 경제발전이 더욱 촉진되어 화폐경제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서술하였다. 이

13) 『조선통사』(상, 1977년판) (서울: 도서출판 오월, 1988), p. 415.

러한 화폐경제는 농업에 다시 영향을 주어 마침내 화폐지대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화폐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자립적 생산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전통적인 신분관계는 소작상의 순수한 화폐관계로 전환되었다. 농민들은 화폐지대를 물기 위하여 폐쇄된 자연경제의 장벽을 뚫고 자기의 생산물을 시장에 나가서 팔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리하여 화폐지대가 발생한 곳의 농민들은 시장을 통하여 다른 상품생산자와 연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⁴⁾

이처럼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적인 화폐경제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여기에 자극되어 농업과 수공업도 크게 진전되었음을 서술하였다. 농업에 있어서 비료의 사용이 권장되고, 이앙법이 확대되며 이모작이 보급되었을 뿐 아니라, 상업적 농업이 더욱 발전하였음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 “자급자족적 자연경제의 장벽을 그 밑뿌리로부터 흔들어놓기 시작하였다.”고¹⁵⁾ 보았다. 그리고 제1절의 “국내상업의 발전” 항목에서는 도고상업의 발전과 경강상인이나 개성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의 발전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사회내부의 계급적 모순을 확대하기도 하였지만,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였다는 것이다. 1977년 판 『조선통사』(상)의 제11장은 경제의 발전에 따른 계급적 모순의 확대와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룬 것이다.

1991년판 『조선통사』(상)의 제8장과 제9장은 17·8세기의 사회경제의 발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77년 판에 훨씬 못 미친다. 우선 해당 부분의 목차내용만 보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한 눈에

14) 위의 책, p. 434.

15) 위의 책, p. 437.

알 수 있다. 특히 1977년 판의 제11장과 1991년 판의 제9장은 18세기 역사를 서술한 곳인데, 그 내용구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1977년 판이 훨씬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사실 그 구체적인 서술을 보더라도 1991년 판에서는 경제작물의 재배나 이앙법의 보급, 이모작의 시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서술은 거의 빠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경제의 발전이 화폐경제의 발전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18세기에 이르러 자본주의적 경제가 발전해 갔다는 1977년 판의 체계적 서술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1991년 판에서는 그 형태만 겨우 남아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1991년 판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 소위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했다는 점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었다. 『조선통사』(하)에서 공산주의의 자생적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전제로서만 18세기의 역사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17·8세기 사회경제의 발전에 대해서는 남한의 학계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여서 관계된 연구성과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가장 잘 반영한 개설서로 알려진 이기백의 『韓國史新論』을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북한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이기백은 1963년 『國史新論』, 1967년 『韓國史新論』, 1977년 『韓國史新論』(改訂版), 1990년 『韓國史新論』(新修版)을 거듭하면서 그 동안 학계의 연구의 진전에 따라 자신의 개설서를 꾸준히 개정하여 왔기 때문에 그의 개설서를 보면 자연히 17·8세기 역사서술의 변천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다.

1963년 『국사신론』에서는 제5편 “조선왕조”라는 부분에 건국에서부터 대원군 시대까지가 다 묶여 있을 뿐 17·8세기 부분이 전혀 강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왕조 중심이 아닌 지배세력의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구분을 시도했던 1967년 『한국사신론』에서는 제11장의

제목이 “농촌의 분화와 상업자본의 발달”로 되었다. 벌써 이 시기의 역사해석이 이처럼 달라진 것이다. “경제적 성장”이라는 이 책 제11장의 제4절은 ‘농촌사회의 분화’ ‘상업자본의 발달’ ‘수공업의 새 양상’이라 하여 조선후기 사회경제의 발달에 대해 훨씬 구체적이며 새로운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그러나 1977년 『한국사신문』(개정판)의 제11장의 제목은 “광작농민과 도고상인의 성장”으로 수정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 농업의 발전을 주도했던 농민과 새로이 대두한 상인층을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학계의 이 분야 연구가 진전된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는 1990년 『한국사신문 신수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의 발전이라는 이 시대사의 중요성이 남한의 역사서술에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기백의 개설서들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시기의 경제발전을 강조하되 결코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남한의 학계에서도 이 시기에 자본주의적 경제가 발전했다는 주장이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서구적 경제체제가 자생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발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강하다. 이기백은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 한국사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종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¹⁶⁾

사회경제사를 강조하는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1990년대에 이르러 이런 중요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1977년 판에서 것처럼 이 시기의 경제발전상을 강조하면서 자본

16) 李基白, 『韓國史新論』(新修版)(一潮閣, 1996), pp. 6-9 참조. 여기에서 저자는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저자의 학문적 입장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76년의 『韓國史新論』(改訂版)의 序章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표명되었다.

주의의 자생적 발생에 대해 주목하였던 북한역사서술이, 1990년대에 와서는 이 시기의 경제발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생적 발전이 18세기에 이루어 졌다는 점은 여전히 강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역사서술에서 17,8세기 경제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그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전체를 해석하는 틀은 이처럼 달랐으며, 1990년대에 이를수록 그 차이성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남북한 역사학의 차별성

위에서 남북한 학계의 유사성을 민족주의적 경향과 17,8세기의 경제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사성은 남북한 역사서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사한 내용에서조차 근본적인 차이점이 현격한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측면에 이르면 그 차이점은 얼마나 클 것인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런 차이점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정통론

북한의 역사서술에서는 마치 조선시대 성리학적인 역사서술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정통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조선통사』

(상)의 상고사부분은 고조선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삼국시대부분은 완전히 고구려가 중심이 되어 있다. 제3편 봉건사회의 제3장 4절을 보면 그 제목부터 “고구려에 의한 국토통일정책의 추진과 세나라의 호상관계”라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첫 대목을,

고구려는 오래전부터 삼국의 통일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주변나라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밀고나갔다.¹⁷⁾

라는 김일성의 어록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도 “고구려가 세나라의 통일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였으며 또 외래침략세력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였다.”(p.99)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극히 짧고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 고구려의 수, 당제국과의 투쟁사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도 이들이 삼국 중 고구려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어서 『조선통사』(상)에서는 신라의 통일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7세기중말엽의 반침략투쟁과 발해의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은 단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침공에 대한 고구려와 백제인의 투쟁으로 대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였다.

발해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발해국을 세우는데서 주동적 역할을 논것도 고구려사람들이었고 발해국에서 권력을 잡은 주되는 세력도 고구려사람들이었다. 발해왕은 자신을 『고려』(고구려) 국왕이라고 불렀다. 발해

17) 1991년판 『조선통사』(상), p. 96.

국안에서 고구려사람들은 말갈사람들로부터 『두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고구려고토에 발해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강토에는 두 개의 봉건국가 『발해, 후기신라』들이 남아있게 되었다.¹⁸⁾

여기서 소위 통일신라는 “후기신라”로 표현되었으며, 후기 신라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역사는 발해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조선통사』(상)에서는 고려의 통일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고려의 통일을 우리 나라 최초의 통일국가의 등장이란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시작을 “원래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¹⁹⁾라는 김일성의 어록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어서 고려의 건국 의미를 강조한 김일성의 어록을 다시 길게 인용하고 있다.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은 10세기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고려는 신라가 차지하고있던 대동강이남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멀리 북쪽에서 이주하여온 발해의 유민들까지도 하나의 주권밑에 통합하였으며 광활한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렸다. 고려라는 이름도 고구려에서 유래한 것이다.²⁰⁾

고구려가 이루지 못한 국토의 통일을 고려가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고려의 건국을 특별히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정리하여 보면 북한에서는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북한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다고까지 말

18) 위의 책, p. 146-147.

19) 위의 책, p. 187.

20) 위의 책, pp. 187-188.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나 조선왕조는 여기에서 거의 형식적인 서술만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며, 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도 북한의 영토 안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역사인식태도였다. 이것은 모든 왕조를 우리 역사의 정당한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남한 학계의 입장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역사학이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2. 김일성의 개인 숭배와 현대사 인식

『조선통사』(하)에서는 1945년 조국의 해방을 이루어 낸 것은 김일성의 업적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대경사로 것처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수령님을 만나뵈을 그 날을 손꼽아가다렸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영모임에 참석하시는것도, 항일혈전의 20성상 그 언제나 잊으신적이 없는 고향 만경대의 방문도 다 뒤로 미루시고 간고한 투쟁의 피로도 푸실사이도 없이 건국앞에 나선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부터 풀어나가시였다.²¹⁾

김일성은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으로 서술되었으며, 이후의 현대사는 오직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만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현대사는 김일성 개인에 대한 숭배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1987년판 『조선통사』(하)를 보면 무장항일투쟁과

21) 위의 책, p.302.

조선혁명정부의 결성, 주체사상의 확립 및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끈 김일성의 활약상이 134 페이지에서 299 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거르지 않고 서술되어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조선통사』에서는 한국전쟁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 전쟁의 의의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역사적승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면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정부, 인민군대와 인민에게 그 어떠한 엄혹한 시련도 이겨내고 원썩과 싸워이길수 있는 필승불패의 사상정신적광석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있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계심으로 하여 전쟁승리의 모든 요인들이 확고히 마련될 수 있었다.²²⁾

김일성이 주체사상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는데,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 때에 와서 조국해방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끈 것도 김일성과 그가 창시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때문이었다는 위의 인용문은 북한의 역사학이 북한의 현체제에 얼마나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의 구세주로 김일성을 숭배하고, 한 사람을 주체로 하

22) 위의 책, p. 492.

여 서술된 북한의 근현대사를 보면, 북한의 역사학이 더 이상 역사학이 아닌 종교적 교리서에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김일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일제시대 이후의 역사서술에서 남북한의 차이점을 따진다는 것은 너무도 무의미한 일이다. 학문과 종교를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IV. 남북한 역사학의 통합은 가능한가?

최근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남북한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확대되리라는 기대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학문적 교류도 그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틈틈이 북한의 역사학에 대한 연구를 해온 필자의 경험으로 본다면, 남북한 사이에 건전한 역사학의 교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에는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역사학이 북한정권의 철저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부분적으로는 공통되는 분야가 많다. 이 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민족주의적 역사해석이나 17,8세기 사회경제의 발전 같은 분야 이외에도 남북한 학계가 공통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수많은 소단위의 주제가 있다. 그러나 역사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합적인 해석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결코 결합될 수 없는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 확실한 것이다. 만약 남북한 역사학의 통합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적어도 북한에서는 역사학을 김일성을 우상화한 수단으로 더 이상 이용해서도 안될 것이며, 남한에서는 남북통합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누려왔던 학문의 자유를 상당부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이 가능한 일이며, 또 바람직한 일인가? 남한의 학계에서 학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역사학의 통합을 피한다고 해서 진정한 남북통일의 길이 열리겠는가? 필자는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는 통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남북의 이런 현실이 이 시대에 공존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동등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의 역사학은 학문의 세계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사회가 더욱 개방되고 민주화되면서 이제 마르크스의 사관에 따르는 역사학자들도 자유로운 역사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그런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들도 많이 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했던 북한의 역사학과 교류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을 내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 사회가 더 이상 고전적인 마르크스-레닌의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며, 북한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런 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한의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술과도 북한의 역사학은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²³⁾

사실 학문의 세계에서 인위적인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저마다 공존하고 대립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진정한 학문을 말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남북통일이라는 이름 하에서도 역사학의 통합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의 역사학이 권력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서

23) 이에 대해서는 鄭杜熙, 「北韓에서의 歷史學과 現實과의 關係」 『東亞研究』 35, 1998.의 결론 부분에서도 논한바 있다.

로 이견이 있더라도 활발하며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역사학이 권력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북한의 현 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나 가능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현재의 우리 역사학계가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학문의 통합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 역사학의 실상에 대하여 세부적인 데까지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려는 본격적인 연구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현실에서는 북한의 역사교과서들, 논문들, 역사서들, 및 기타 역사관계 자료들을 구해보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갖추어 놓은 도서관도 없는 실정임을 생각해 보면 북한의 역사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학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정책적으로라도 북한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일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